

문학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꿈꾸며

강진호 문학평론가, 성신여대 교수

culture 'art

1970년대 초,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의 한계를 계기로 군사정권에 의해 주도되었던 옛 조직의 틀이 21세기의 디지털 정보 환경에 맞게 창조적인 변신을 꾀하였다. 이는 새로운 브랜드의 출시와 함께 이미지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기업의 몸부림처럼, 문화예술 분야도 이제 변화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문예진흥원의 지난 공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32년동안 문학 분야에 뿌린 씨앗들을 되살펴 보고, 향후 예술위원회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문예진흥원과 문학

최근 몇 년 동안 문학 분야는 빈사상태였다. 90년대 이후 가속화된 문학의 부진현상은 표면적으로 '안 쓰고, 안 읽고, 안 팔린다'는 세태로 요약될 수 있거니와, 그럼에도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위기만을 부르짖는 장송곡 같은 진부한 음률에 젖어, 제도와 관성으로만 근근히 연명하고 있었던 게 문학이 처한 현실주소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작금의 '문학 회생(?) 프로그램'까지 등장한 것이다. 여하튼, 이 모든 상황은 문학의 총체적 위기 국면을 표현해 주는 구체적인 징후들이다. 그러기에 문학예술 지원제도의 산실인 문예진흥원의 향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라는 이름은 1973년에 출생하여 2005년에 소멸되었으니, 인간의 나이로 치자면 서른 두 살의 수명을 유지한 셈이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이 땅의 문화예술계의 지도는 바뀌었고, 그 지나간 과정의 뒤편에는 문화예술계의 동반자이자 후원자로서 문예진흥원이 위치하고 있었음을 기억한다.

출생 당시 이름에서부터 '문예 진흥'이라는 목표를 뚜렷하게 명시하고 정부 부서가 아닌 독립된 민간 지원기구로 출발했지만, 흥미롭게도 '진흥'이라는 말에는 한편으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중시하던 군사정권 시절의 냄새가 짙게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진흥시킨다'는 말은 추진 주체가 외부나 상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뜻하고, 그런 중앙집권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정책의 결정도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 될 공산이 컸다. 이런 의미에서 '진흥'의 꼬리표를 떼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라는 새 장으로

문학 분야의 황폐화는 곧 바로 문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문예진흥원이 해 온 일은 문학을 상품과 시장의 논리로부터 방어하고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었다.

literature

넘어가는 것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새로운 브랜드의 출시와 함께 이미지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기업의 몸부림처럼, 문화예술 분야도 이제 변화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셈이다. 1970년대 초,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정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물질과 정신이 조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갖고 군사정권에 의해 주도되었던 옛 조직의 틀이 21세기의 디지털 정보 환경에 맞게 창조적인 변신을 꾀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밑뿌리에는 이 땅의 '문예 진흥'을 위해 문예진흥원이 뿌려놓은 수많은 씨앗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 현장 예술인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가의 정책을 뒷바라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는, 또 열악한 기금을 소액 다건(多件)주의로 배분하다 보니 지원의 효과나 예술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식의 비판도 없지는 않았으나, 문예진흥원이 모태가 되어 이 땅의 문화적 불모지가 개간되고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는 등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가난한 문인들의 편이 되어 창작의욕을 북돋려고 갖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지원제도를 만들고, 빈사 상태의 문학에 영양주사를 놓는 수혈자이자 문학의 동반자로 역할을 해온 공로는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갖은 노력은 척박한 토양을 적시는 물과 햇빛의 역할을 해왔고, 사실 그 정도의 지원이어나마 없었다

면 문학의 남루와 궁핍의 정도는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이 글은 문예진흥원의 지난 공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32년 동안 문학 분야에 뿌린 씨앗들을 되살펴 보고, 향후 예술위원회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원의 현황과 내역

현재 타 분야가 문화 인프라 구축, 즉 극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기반을 다져가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면, 문학 분야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뒷짐을 지고 있거나 부적응 상태로 머뭇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문학은 모든 문화예술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초예술로 인식되어 왔지만, 시대의 흐름과 괴리되고, 또 그것을 타개할 만한 근본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까닭에 그 내핍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시와 소설 등 기초예술의 창작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문학의 위기 상황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1976년부터 발행되고 있는 「문예연감」에 의하면 문학 작품의 생산은 1976년에 비해 양적으로는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점차 위축되는 양상이고, 한 해 동안 출간된 신간의 수도 1982년 이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전체적인 작품 생산의 양적인 저하는 창작 기반의 불안정, 문학 환경의 변화, 창작 의욕의 감퇴 등 여러 복합 요인과 더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 하는 식으로 순수예술이 설 자리가 점점 협소해지는 시대 상황

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지만, 한편으론 그것을 타개할 만한 근본적인 지원정책이 부재했던 데도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문예진흥원이 시행해 온 지원사업의 궁극적인 이념이 '예술의 본질인 창조성이 함축하는 의미를 공공적인 가치로 활용하여, 국가 발전의 원천이 되는 국민의 창조성 계발과 예술을 통한 삶의 질 개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문학의 위기는 더 이상 방지될 수 없을 것이다. 문학 분야의 황폐화는 곧 바로 문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예진흥원이 해 온 일은 문학을 상품과 시장의 논리로부터 방어하고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었던 것은, 그런 점에서 중요하게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그런 관계로 지난 32년 동안 행해진 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살펴보고, 반성적으로 음미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다. 그 동안 문학 분야에 대한 지원의 형태는 사업의 성패 여부를 떠나 매우 다양했다. 그 중 특징적인 것을 기억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창작지원

창작 지원은 문예진흥원이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사업이다. '창작지원제도'는 위기에 처한 문학 및 출판계의 실정을 감안해서, 작가에 대한 창작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여 창작여건의 개선과 문학 분야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었고, 문예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그간 다수의 창작집이 간행되었다.

창작 지원은 그 지원 유형에 변화가 많았다. '개인 창작집 발간지원'은 개원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온 사업이었다. 1975년부터 자격 제한 없이 모든 문인들을 대상으로 일정 편수의 미발간 작품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시, 소설, 희곡, 평론, 아동문학을 망라한 전 분야에 걸쳐 문학 작품집 발간비 일부를 보조해 왔다. 이를 통해 작가들이 보다 수준 높은 작품집을 발간하고 의욕적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1979년 '제1회 아동문학상' 시상식 장면

창작집 발간 지원이 아니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창작 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뒷받침하여 문학의 진흥을 도모하고 정선된 양질의 문학작품을 널리 보급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 1990년에서 1993년까지 시행되었고, 1990년도 100명, 1991년도 100명, 1992년 50명의 문인이 창작지원금을 받았다.

이 외에도 간접적인 창작 지원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는 '문예지 원고료 지원제도'(1974~89)를 떠올릴 수 있다. 주지하듯이 문인들의 주 수입원은 원고료이다. '문예지 원고료 지원제도'가 맨 처음 생겨난 배경을 보면 1974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당시 문인들의 원고료가 시 1편 당 2천 원에서 5천 원, 산문 원고료가 원고지 1매 당 2백 원에서 5백 원 정도였다는 것이다. 타 분야에 비해서 참으로 열악한 수준이었고, 사정이 이러하니 문예지에서 받는 고료만 가지고는 문인들이 생계를 꾸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1974년부터 문예지 원고료 지원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문예지 원고료지원은 1990년 문인들에게 직접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문학작품 창작지원' 제도로 전환되기까지 지속되었고 많은 문인들에게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1974년부터 「문학사상」, 「현대문학」, 「한국문학」,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현대시학」, 「월간문학」 등 대표적 문예지 11종을 대상으로 원고료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점차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도 증액되었다.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는 달리 '인프라' 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곳이 문학 분야였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변화들은 결국 비효율적이고 관성적인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그림자들을 성찰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Infrastructure

1989년에 이르면 총 21개 잡지에서 지원 혜택을 받았고, 그런 지원에 힘입어 잡지사는 종전보다 50~70% 인상된 고료를 문인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과정에서 문인들의 창작의욕 고취라는 본래의 취지가 살려지지 못하고 원고료로 돌아가야 할 지원금이 잡지의 발간비로 전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지원 문예지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후 폐지되기에 이른다.

문학단체 활동 지원

'문학단체 활동 지원'은 문예진흥원에서 개원 이후부터 시행해왔던 사업으로, 문학단체를 비롯하여 기간(基幹) 문예단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업이다.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지역별, 장르별 문학단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학 인구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주요 기간 문학단체의 기관지 발간을 지원해 왔는데, 이를 통해 문단의 활발한 활동 및 상호교류를 돕고 작가 개인들에게는 작품 발표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문학 분야의 창작 여건 확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시 낭송회, 백일장, 문학 세미나의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순수문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독자와 대중들에게 보다 가까이에서 문학을 접하고 호흡할 수 있게끔 도운 것도 문예진흥원이 지속적으로 해 온 일 중의 하나였다.

동인지 발간 지원

'동인지 발간 지원' (1979~99)을 통해 동인지의 활성화를 도모한 것도 문예진흥원이 시행한 사업들 중 특기할 만한 것이다. 동인지는 출판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업적인 잡지와는 다르다. 이러한 잡지는 학술 사상 정치 문학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으나, 그 중에서도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문학 분야의 동인지라 할 수 있다.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동인지의 위상은 1919년 2월 1일에 일본 도쿄에서 김동인 등이 중심이 되어 「창조」를 발행한 것을 효시로, 이후 「폐허」, 「백조」, 「시문학」 등이 발간되면서 현대문학의 발전을 주도했고, 1980년대에는 문예운동의 진지로 기능하면서 화려하게 부활한 바 있다.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잡지와 함께 문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중요한 매체인 까닭에 동인지의 번성은 곧 문학의 활력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문예진흥원에서는 지역문학의 창작 활성화를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으므로 서울보다는 지방 동인지의 지원에 주력하였다(1979년부터 1992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서울과 지방의 비율이 20.8% 대 79.2%였다). 이는 문예지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 문인들에게 더 많은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지원의 대상은 4집 이상 발간되었거나 활동 실적이 있는 동인지였다.

동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은 2000년에 폐지되었지만 보다 진화된 형태로 전환된 것이 현재의 '한국 동인지 문학관' (www.donginji.or.kr)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동인지 문학관'은 한국 문화예술 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문예진흥원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 것으로 연수회와 사이버 문학 활동을 통해서 본격적인 '인터넷 한국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현재 한국 동인지 문학관에는 15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신진예술가 지원

2000년에 들어와서는 '신진예술가 지원제도'라는 것이 새로 생겨났다. 문학 분야에서는 만 35세 이하의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로, 작품집 발간을 비롯한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차세대의 문학가로 육성한다는 것이 취지였다. 앞서 언급한 창작지원제도와는 별도로 신인작가를 발굴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우수 문학작품 보급

'문학작품 연간선집 편찬'과 '우수 문학작품 보급'도 기억할 만한 사업이다. 문예진흥원에서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자체적으로 문학작품 연간선집을 편찬한 바 있다. 그 해의 문예지에 발표된 시·시조, 소설, 희곡·수필, 평론, 동화·동시 작품 중에서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수록한 선집을 발간하여 배포했다. 선집에 실린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게재료를 지급했다. 문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독자들이 우수한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예진흥원에서 선집을 자체 발간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었고, 선집에 게재된 작품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나중에는 '우수 문학작품 보급'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편된다.

'우수 문학작품 보급'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인 '이 달의 우수 문학도서 보급'으로 이어져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매 분기에 출간되는 다양한 문학도서 중에서 공정한 심의과정을 거쳐 선정된 도서를 문예진흥원에서 다량으로 구입해서 전국의 국·공립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 소외지역이나 계층, 시설에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고사 상태에 놓여 있는 문학 출판을 활성화하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증대시키며, 독자들 또한 전국 도서관에서 훌륭한 문학의 성과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니,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는 셈이다.

통일문학전집 발간

이외에도 문예진흥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학작품 연간선집 편찬' 외에 '통일문학전집 발간'을 자체적으로 추진했다. 분단 이후 단절된 남북한의 문학적 성과를 정리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남북한을 망라하여 분단 이후 현재까지 발표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전집을 발간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남한 작가 746명, 북한 작가 258명의 5,378편의 작품이 한 장의 CD롬에 수록되어 있으니, 그 자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집이다. 하지만 대중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문학상의 운영과 폐지

문예진흥원에서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대한민국 문학상'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다. 이 상은 그 전에 있었던 반공문학상(1976년), 흙의 문학상(1977), 아동문학상(1979)을 통합하여 제정한 것인데, 1981년에 신인문학상, 1983년에 번역문학상, 1987년에 평론문학상이 신설되면서 나중에는 일반, 평론, 아동문학, 번역, 신인 부문 등 5개 부분으로 확정하여 시상해왔다. 1992년까지 유지되다가 폐지되었는데, 당시 150여 종의 문학상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문예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문학상의 존속의미가 감소된 것이 배경이었다. 단, 번역부문만 분리되어 1993년부터 '한국문학번역상'이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다.

덧붙이자면 기존의 문학상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지

만, 2004년에 새로 만들어진 '올해의 예술상' 안에 문학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의 예술상'은 문화예술계의 한 해 성과를 정리하는 권위 있는 '문화예술상제도'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문학 부문은 한 해 동안 발표된 작품 중 최우수 작품 한 편과 우수 작품 두 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상금을 주고 있다.

문학정보화사업의 추진과 문학포털 사이트의 제작운영

인터넷이 몰고 온 사이버 문화의 위력은 그간 문학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영화, 음악 등 대중문화와 인터넷의 위력 앞에 문학(본격문학)이 경쟁력을 잃고 침체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예진흥원은 자체적으로 '문학 특별사업반'을 꾸려 작년부터 9개월 동안 '문학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왔다. 문예진흥원이 자체 운영하는 사이버 문학광장 '문장'(www.munjang.or.kr)은 그 동안 문학의 침체 및 위기를 몰고 온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인터넷을 오히려 문학 창작과 향수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방대한 문학 자료들이 대부분 출처가 불분명하고 저작권 역시 해결되지 못한 것임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문학도서관과 문학 전문 블로그의 운영, 온라인 청소년 문학관 등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문학을 감상하고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문학적 영토'를 사이버 공간 안에 개척한 것이었다. 여기에 '인터넷 문학 라디오'는 문인 개인의 힘으로 실현되기 힘든 서비스라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적 지원 기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여하튼, 이것은 문화산업의 구조 안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던 문학이 사이버 공간 안으로 본격 진출하는 문화사적 사건으로 문예진흥원은 인터넷과 문학의 결합을 추동하는 엔진역할을 한 셈이다.

지원유형에도 변화가

30여 년 간 문예진흥원에서 시도한 제도는 다양했지만 시행된 사업들 중에는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효용성이 소멸된 제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들면서 흐지부지된 제도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1992년 발간된 '한국문학작품선'

'내 고장 문학인기념사업'과 '문학 창작소재 발굴조사 지원' 등이다. 가령, '문학 창작소재 발굴조사 지원'(1992~97, 1999)의 경우, 창작 역량이 뛰어난 작가를 선정하여 해외에서 참신한 문학 소재를 발굴 조사하여 이를 작품화하도록 한 것이었다. 문학인들에게 창작 소재 발굴 작업을 돕고 체험적 시야를 넓혀 창작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방문연구와 조사 등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지만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또한 문학사적으로 명성을 남긴 지역 문인들의 기념사업과 행사를 지원한 '내 고장 문학인 기념사업'(1992~95)도 얼마 가지 않아 폐지되었다. '민족문학대계 발간 지원' '문예지 발간비 지원' 등의 사업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온 행사도 있다. 한편으로 '문화예술 체험 지원'이라 하여, 예를 들어 작가 축제, 문학 캠프, 문학회가 주최하는 문학 강연, 시민 문학 강좌 등을 지원해 온 것도 문예진흥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일들 중 하나이다. '예술 보존조사연구 지원'은 각종 문학단체들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 행사에 대한 지원 및 중요 문학 자료 간행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상기한 내용은 대략적인 것으로, 지면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지원활동이 많았고 지원 유형에도 변화가 많았다. 그 중에는 관성적이고 의례적인 지원의 수준에서 그치고 만 것도 있었지만, 창작을 지원하는 제도나 문학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등 지속 가능한 사업들은 앞으

로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 인프라 구축과 위원회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는 달리 '인프라(infrastructure)'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적용되지 않았던 곳이 그간의 문학 분야였다. 그렇게 보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변화들은 결국 비효율적이고 관성적인 시스템에서 발생했던 그림자들을 성찰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분야에서, 그런 성찰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지형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학소년, 문학소녀'가 사라지고 문학 향유층이 타 매체로 이탈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탈한 인구를 다시 귀환(?)시키려면 기존의 영세한 문학기반으로는 어렵고, 문자만을 읽어왔던 세대의 관점이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세대의 관점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길러낼 수 있는 문화적 전략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문인 또는 다수의 단체에 대한 소규모 지원보다는 기초문예를 진작시킬 수 있는 장기적 안목과 문학 교육의 정상화, 문학 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문학 소통구조에 대한 연구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가 세워져야 한다. 선진국의 전례를 보자면, 문학은 이제 지난 1980년대와 같은 전 사회적인 지지와 호응 속에서 존재할 수 없고, 대신 전문적인 매니아와 소수의 취미집단을 중심으로 생명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그만큼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삶과 생활 전반이 경제에 종속되는 경향이 농후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문학의 운명이란 사회의 기반시설이나 제도 즉, 인프라에 의해 유지될 수밖에 없고, 위원회는 향후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회적이고 소비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에 지나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은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일시적 응급처치로는 해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문인에 대한 1회성 지원이나 단체에 대한 단기적 수혜, 일시적 행사 지원의 수준에서만 정책이 수립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학의 기금 의존도만 높이고 결국 자립기반의 구축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현재 전국에 산재한 문학관들은 지역문학 활성화의 전초기지로 주목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문학관들은 해당 문인의 원고나 유품 따위를 전시했을 뿐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황을 조사하고, 형식뿐인 공간에 내용을 채우는 일에도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교육과 지역 축제, 관광과 문학 상품 등과의 제휴를 비롯한 종합 대책의 마련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초조사와 기획을 토대로 장기적인 문학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에 구축된 문학 사이트 '문장' (www.munjang.or.kr)은 문예진흥원에서 직접 운영 관리되는 것으로 문학 환경 개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학정책에도 일관된 그림이 존재해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소액 다건의 기계적 배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지원과 투자 속에서 거대한 호수처럼 고여 있는 문학계가 강하게 펌프질하는 뜨거운 심장으로 바뀔 수 있다면, 문학의 르네상스 또한 불가능한 꿈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르네상스는 지난 과거의 '문학 봄'과는 다른 형태가 될 것이다. 일상과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는 문학, 문학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문학이 되는 그런 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의 부흥을 통하지 않는 한 문화선진국으로의 도약은 헛된 꿈일지도 모른다. 새로운 기구로서 '위원회'는 이런 문학계의 요구를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